어린이집 설계에 대한 건축심화교육을 다녀와서

About Executive Education of the Institute for Child Care Design

최경숙
Choi, Kyung-Sook

1. 하바드대학교 건축 심화교육과정

작년 여름 미국에 방문학자로 가 있는 동안 하바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어린이집 설계에 대한 심화교육 정보를 접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참석하였다. 하바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는 건축전문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직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코스가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건축에 대한 심화교육(Executive Education)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건축 심화교육은 미국건축가협회(AIA)의 건축사 보수교육에 대한 점수(Credit)가 인정되는 전문교육과정으로 해마다 개설되고 있다. 심화교육의 주제는 건축과 도시계획으로부터 교육시설과 주거건축, 지속가능 건축과 그린 건축, 그리고 리더쉽과 경영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미국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축 분야와 관련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gsd.harvard.edu/professional/exec_ed 이다.

2. 어린이집 설계 심화교육의 간략 소개

어린이집 설계(The Institute for Child Care Design) 심화교육은 어린이 환경설계에 관련된 건축가와 교육학자, 보육전문가, 사업 시행사, 조경전문가 등의 지식과 전망을 모두 집결하고 연결시키는 학제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은 미국 직장어린이집 신설과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Bright Horizons Family Solutions (미국에서 100개 이상의 어린이집 신설과 운영)의 교육과 프로그램 부사장 Jim Greenman이 맡고 있다.

이 세미나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현장답사, 기본계획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를 스튜디오 설계방식으로 팀을 이루어 협력과 논의를 함으로써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국제적 문맥으로 어린이집 설계를 하도록 한다.

세미나는 파트1과 파트2로 구분되었다. 파트1은 어린이집에 대한 강연과 현장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전문가의 사용자 분석과 행위 분석, 공간적 필요조건에 대한 강연과 보육설계 건축가의 디자인 요소와 설계사례 강연, 조경전문가의 어린이집 외부공간 디자인 요소와 사례 강연 그리고 2개 어린이집과 어린이박물관의 현장견학이 3일간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행히 진행자인 Jim Greenman의 배려로 파트1의 셋째 날 건축과 조경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전반부의 흐름을 파악할

* 정회원, 인덕대학 건축학과

수 있었다.

필자가 참여한 강좌는 파트2이며 여러 분야 참석자들을 골고루 안배하여 스튜디오 형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복합적인 어린이집 설계 이슈를 통찰하게 함으로써 타 분야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와 팀 구성원들의 창의적 설계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2일간 진행되었다. 2003년 6월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비용은 630달러 (당시 75만원 정도)이었다.

3. 어린이집 설계 심화교육 파트2의 내용

어린이집 설계 심화교육 파트2 (The Institute for Child Care Design-Part 2)의 첫 날은 디자인 샤렛 (Design Charrette)이고 둘째 날은 실행에 옮기기 (Making It Happen)이었다.

디자인 샤렛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요구사항과 공간적 필요조건을 종합하여 각기 다른 조건에서 기본계획을 해보는 것이다. 2개의 실로 이동하여 각 팀별로 책상들을 모아 작업 테이블을 만들어 토의하고 스케치를 시작하였다.

전체 참석자는 20명 정도이며 4개 팀으로 구분되었고 필자가 속한 팀에는 어린이집 원장 2명과 아동교육연구자 1명, 어린이집 설계 경험있는 설계사무소 직원 1명 모두 5명이 있었다.

설계조건은 어느 재벌이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데 하는데 아동 구성은 45명으로 3개월에서 1년 미만 영아 10명과 1세 이상과 3세 미만 영아 15명,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 20명이다. 그는 대지를 구하기 위하기 위해 알아보면서 보육 프로그램과 실내외 공간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있다. 기획은 목표와 커뮤니티 및 문화, 위치, 교육적 목적, 개체성, 심미성 등을 고려한다. 건물에 대해서는 연령별 구성과 각실 크기 및 공간적 요구사항, 보육실에서 놀이공간으로의 접근성 및 조망, 일조, 신필자는 공간, 안전성, 보안, 각 활동 영역, 특별활동 영역, 식사공간 및 수납공간, 서비스 공간 등 고려한다. 옥외 놀이터에 대해서는 보육실에서의 진입과 그늘 및 물의 확보, 발달에 적합한 놀이, 공간적 다양성, 자연적 놀이, 사회적 놀이,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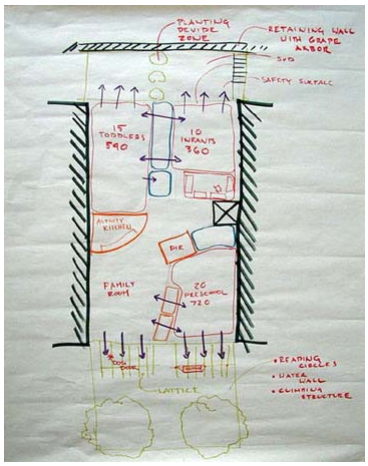

그림 1. 계획안1 평면스케치

등을 고려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필자도 그날은 사인펜과 마카를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마음대로 스케치로 할 수 있어 즐거운 날이었다.

계획안 1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건축주 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며 폭 12미터 깊이 22.5미터이고 면적 81.8평인 지하층 전체와 뒷마당과 옥상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설계하는 조건이다. 뒷마당의 크기는 12미터에 12미터이다.

이 장면에서 같은 팀에 있는 미국인 어린이집 원장들과 아동보육연구자는 지하층이고 너무 좁아 도저히 안 된다고 걱정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면적에 있어 최소면적보다는 넓은 경우이므로 간단하게 계획안을 그려보았다. 뒷마당 쪽에는 1세 미만 영아보육실과 3세 미만 영아보육실을 배열하고 도로 쪽에는 6세 미만 유아보육실을 놓고 계단 근처에 유희실과 간이부엌, 창고가 배열되는 평면 계획안을 보이니 모두 좋다고 하여 설계사무소 직원이 유아보육실과 부엌에 곡선을 가미하여 변화를 주었다. 영아보육실 2개 사이에는 조유공간과 기저귀갈이공간을 두고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1세 영아보육실에는 낮잠영역을 두고 반 개방으로 처리한다. 유아보육실에는 전용 화장실을 두고 계단 입구에는 현관과 사무공간을 카운터형으로 하여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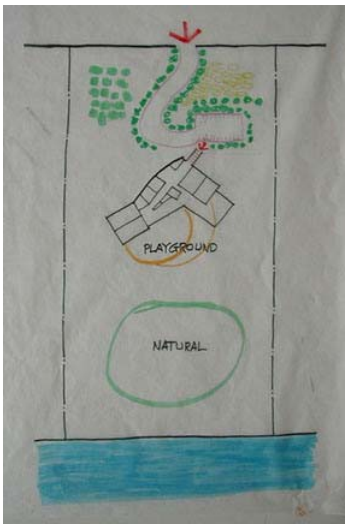

그림 2. 계획안2 배치 스케치

록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건축주가 맨하탄 건물의 지하층을 고가의 1970년 헤비메탈 음반 보관장소로 쓰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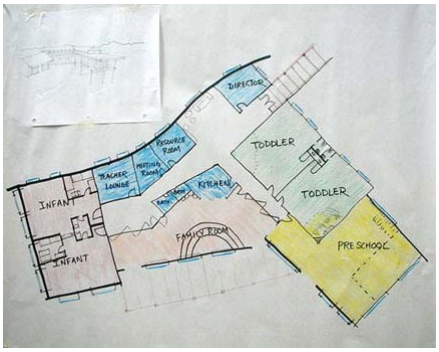

그림 3. 계획안2 평면 스케치

되어 대지 위치를 새로 선정하게 되었다.

계획안2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생 토파즈에 넓은 땅을 구입하여 어린이집을 설계하게 되었다.

남쪽에는 바다를 접하고 북쪽 도로 쪽에는 올리브나무들이 있으며 폭 60미터에 210미터이고 면적은 3,818평이고 도로 쪽이 4.5미터 높은 환상적인 대지가 선정되었다.

우리 팀이 협의한 설계개념과 공간구성은 다음과 같다. 설계 개념은 첫째, 가정과 같아야 할 것, 둘째, 옥외놀이공간이 있어야 하고 셋째, 45명의 아동을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야 하고 넷째, 1층이나 2층이어야 하며 다섯째, 연령별 그룹핑 여섯째, 다양한 조명 일곱째, 교사들을 위한 공간 배려 여덟째, 공간의 연속성 고려 등이다.

공간구성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구분한다. 내부공간에는 유희실이 있어야 하고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구분하며, 부엌에는 개방된 식사공간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을 위한 휴식과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원장실이 있어야 하며 부모를 위한 자료실을 두어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면담 장소로 사용한다.

외부공간은 올리브 나무들을 그대로 두어 숲의 띠를 이루고 물놀이 공간을 비롯한 활동 영역을 모두 갖추도록 한다.

배치계획에서 건물은 대지의 중앙에 두고 바다 쪽 옥외공간에는 모래사장을 그대로 두어 자연을 아동들이 만지고 즐길 수 있게 하고 건물 쪽에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구성한다. 도로 쪽에는 진입로를 가운데 곡선으로 두어 차 속도를 완충시키며오른쪽에 주차장으로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에는 식생 띠를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평면계획에서는 건물 형태를 절곡형으로 하고 중앙부분에 유희실을 개방시키고 관리와 서비스공간을 두며 양끝에 보육실들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북쪽에 현관을 두고 원장실을 두어 주출입구와 주차장을 감독할 수 있게 하며 응접코너와 자료실, 상담실, 교사실을 배열하고 남쪽 유희실 방향에는 유희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능성 부엌을 둔다.

오른쪽에는 1세 영아보육실 2개, 왼쪽에는 2세 영아보육실 2개와 유아보육실을 배열한다. 5명의 영아가 사용하는 1세 영아 보육실은 짝으로 배열하여 조유영역은 선반으로 중앙에 개방시키고 기저귀갈이용 청결실을 반개방형으로 공유하며 수면실은 각각 두면서 반개방시킨다.

7, 8명이 사용하는 2세 영아보육실도 짝으로 배열하여 화장실을 반개방형으로 공유하며 기저귀갈이대는 카운터형으로 각자 설치한다. 유아보육실은 20명이 사용하는 커다란 실로 만들어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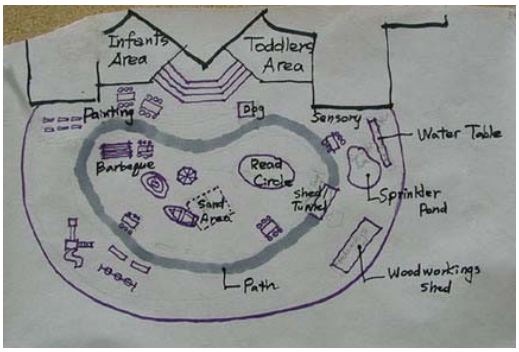

그림 4. 계획안2 외부 놀이공간 스케치

활동 영역이 배열될 수 있게 하고, 바닥 마감재는 바닥에 앉아 놀거나 책을 보는 공간은 카펫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닐타일로 하여 차별화시킨다.

전체적 설계방향이 세워진 다음 작업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옥외놀이공간에 대한 스케치는 30대 초반 보육연구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옥외놀이공간 요소를 하나씩 불러주면 필자는 거기에 적합한 위치와 형태를 상의하며 하나씩 그려 나가기로 하였다. 1세와 2세 영아보육실 바로 앞에는 각기 전용 옥외놀이용 데크를 두며, 자전거 등의 바퀴달린 놀이도구를 위한 포장된 곡선의 길을 만들었다. 그 길에는 놀이집을 두어 그늘 터널이 생기게 하고 그 길 바깥은 동적 활동 위주로 하여, 그림공간과 미끄럼틀, 그네, 벤치, 목공실, 스프링클러 연못 (여름에 바닥에 있는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로 놀이하는 곳), 물놀이 작업대, 감각놀이 공간, 개집 등을 둔다. 길 안쪽에는 동적 활동 위주로 하여, 독서영역과 모래영역, 보트가 있는 흙 동산, 바베큐 그릴 및 식탁 등을 배열하였다.

평면 스케치를 하던 설계사무소 직원이 초기 안을 변경하여 외부 놀이공간과 접한 건물 형태가 달라졌지만 그 부분을 다시 그릴 시간이 부족하여 그대로 외부공간 스케치를 끝내야 했다.

다시 참가자들이 모여 팀별로 설계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다른 팀들도 각기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어 설계 의도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실행에 옮기기 (Making It Happen)에서는 공간에 대한 희망사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전망에 대한 공통점과 더 좋은 마감재에 대한 전망, 더 좋은 가구와 비품에 대한 전망, 더 좋은 수납공간 및 더욱 튼튼한 구조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그 외 고려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안전과 보안, 기계/전기/상하수도 설비, 창호와 철물, 놀이터의 바닥 마감재, 지속가능한 설계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학제적 연구와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가정과 같은 어린이집의 공간개념과 안전과 감독 등에 대한 설계시 고려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4. 글을 마치며

책자와 사진 자료를 찾아 이 글을 쓰는 동안 그 당시의 긴장감과 감동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어린이집 건축 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들과 건축설계에 요구되는 설계 범주들에 대해 시설 운영자와 아동교육학자, 사업시행사, 건축가의 사례와 경험담을 들으면서 바람직한 어린이집 건축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필자는 개발도상국가 국민으로서 선진국의 어린이집을 보면 넓은 면적과 좋은 시설, 축적된 설계 노하우 등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세미나를 범세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직력과 준비성이다. 한편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것은 참석자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실무에서 얻은 경험을 당당하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신감이었다. 해마다 개설되는 이 세미나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참석하고 싶다.